

'우승 후보 1순위' 유해란, 첫 승 정조준

에비앙 '튠5' 상승세 타고 내일 개막 LPGA 데이나 오픈 출격

CME글로벌 포인트 랭킹·상금랭킹 출전 선수 중 으뜸 최혜진·임진희·성유진·이소미도 첫 우승 도전 출사표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우승을 정조준했다.

유해란은 19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리는 LPGA 투어 데이나 오픈(총상금 175만 달러)에 출전한다.

유해란은 이 대회 출전 선수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우승 후보 1순위다.

CME글로벌 포인트 랭킹과 상금랭킹 9위, 올해의 선수 포인트 11위 등 모든 지표에서 출전 선수 가운데 으뜸이다.

메이저대회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 이어 열리는 데다 다음 대회가 총상금 260만 달러의 CPKC 여자오픈이라서 상위 랭커 대부분이 빠졌다.

유해란과 마야 스타르크(스웨덴), 스테파니 키리아쿠(호주)를 합쳐 상금 랭킹 20위 이내 선수로는 단 3명만 출전했고, 15위 이내

선수로는 유해란과 스타르크(10위) 둘 뿐이다.

게다가 유해란은 경기력이 상승세다.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공동 5위에 올라 한국 선수 최고 순위를 차지했다.

최혜진도 생애 첫 우승을 노리고 출사표를 냈다. 최혜진 역시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나흘 내내 상위권을 달린 끝에 공동 7위라는 성과를 거두고 미국으로 돌아왔기에 자신감이 넘친다.

신인 임진희와 성유진, 이소미도 첫 우승을 기대하고 출전한다.

데이나 오픈은 한국 선수가 유난히 우승을 많이 수확했던 대회다.

박세리는 무려 4번이나 우승했고 김세영, 김인경, 최은정, 유소연,

최나연, 이은정, 김미현 등이 챔피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디펜딩 챔피언 린 그랜트(스웨덴)와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한 키리아쿠, 그리고 스타르크 등이 유력한 우승 경쟁 후보로 꼽힌다.

이번 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한 렉시 톱프슨(미국)도 복병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열린 KPMG Women's PGA 챔피언십 3라운드 2번 홀에서 버디를 잡고 주먹을 불끈 쥐며 기뻐하는 유해란 /AFP-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올림픽 참가 전남 선수 격려

김영록 전남지사는 17일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 소속·출신 선수 9명에게 응원과 격려의 서한문을 발송했다.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남 선수는 근대5종 서창완(국군체육부대), 양궁 남수현(순천시청), 배드민턴 정나은(화순군청), 펜싱 최세민(전남도청), 복싱 임예지(화순군청), 육상 김장우(국군체육부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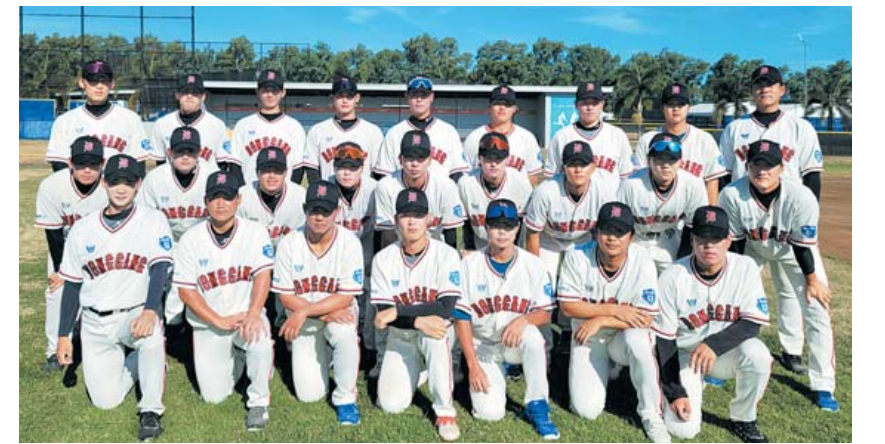
특히 근대5종 서창완은 '2024 국제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관왕에 올라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기대된다. 양궁 남수현은 올림픽 여자 단체전 10연패 대기록에 도전한다.

또 나주 출신 배드민턴 안세영(삼성생명)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금메달 사냥에 나서고, 신안 출신 사격 이보나(부산시청), 여수 출신 수영 김민섭(목포스포츠타운)도 파리 무대에 오른다.

김영록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구슬땀을 흘리며 실력을 연마한 선수들께 뜨거운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며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그동안의 값진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의 명예를 빛낼 선수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전남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길 기원하고, 온 전남도민의 마음을 모아 힘껏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동강대 '우승은 다음 기회에'

대학야구선수권대회, 강릉영동대와 준결승서 고배

동강대 야구부가 '제7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 첫 우승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결승문턱을 넘지 못했다.

17일 동강대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북 보은스포츠파크 야구장에서 열린 강릉영동대와 준결승전에서 동강대 야구부가 1-7로 패했다.

2021년 대회 준우승 이후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했던 동강대는 이번 대회 3위에 만족해야 했다.

동강대는 조별리그에서 중앙대에 이어 조2위를 차지했고 광주·전남 대학팀 가운데 유일하게 본선에 올랐다. 동강대는 토너먼트 첫 경기에서 신성대에 7-0 콜드게임을 거뒀고, 조별

리그에서 아쉽게 패한 중앙대와 8강에서 맞붙었다.

이날 동강대는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7-6 역전승으로 조별리그 설욕과 함께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강릉영동대에 막혀 우승도전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동강대는 오는 29일 경남 밀양에서 개막하는 '제58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 출전, 응시세무대와 첫 경기를 치른다.

한편, 동강대는 오는 9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U리그' 왕중왕전과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한다./김다이자

KIA, 웨이버공시 외야수 예진원 영입



KIA 타이거즈가 웨이버공시된 외야수 예진원(25)을 영입했다.

경남고를 졸업하고 2018년 2차 2라운드 전체 18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한 예진원은 통산 117경기에 출전해 타율 0.174(190타수 33안타), 2홈런, 13

타점을 냈다.

이번 시즌 22경기에서 타율 0.211(19타수 4안타)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결국 지난 9일 방출됐다.

KIA 관계자는 "예진원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고 영입을 결정했다. 외야수 선수층 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김주형, 디오픈 첫날 디셈보·오베리와 티샷

한국 남자골프의 '영건' 김주형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브리티시 오픈(이하 디오픈) 첫날 강호들과 샷 대결을 벌인다.

17일 발표된 조 편성에 따르면 김주형은 18일 오후 5시47분 브라이슨 디셈보(미국), 루드비그 오베리(스웨덴)와 1라운드에서 티샷을 한다.

LIV 골프에서 활동하는 디셈보는 지난 6월 메이저 대회 US오픈에서 우승하며 상승세를 탔다. 이전 6차례 디오픈에서 최고 성적은 2022년 대회 공동 8위이다.

2023년에 프로로 전향한 오베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샌더슨 팜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랭킹 4위까지 올랐다.

최근 상승세를 탄 임성재는 18일 오후 3시52분 저스틴 토머스(미국), 매슈 사우스게이트(잉글랜드)와 1라운드



17일 진행된 디오픈 연습라운드에 참가한 김주형 /AP-연합뉴스

를 시작한다. 안병훈은 18일 오후 9시26분 제이슨 데이(호주), 리키 파울러(미국), 김시우는 18일 오후 10시48분 콜린 모리가와(미국), 샘 번스(미국)와 티샷한다. 송영한은 18일 오후 3시58분, 고근범은 오후 6시53분, 김민규는 오후 7시15분, 왕정훈은 19일 오전 0시27분에 1라운드를 시작한다. /연합뉴스

재런 두란 '별들의 잔치' MVP

MLB 올스타전, AL 5대3 승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에서 아메리칸 리그(AL)가 내셔널리그(NL)를 상대로 승리하고 지난해 패배를 설욕했다.

AL은 17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필드에서 열린 2024 MLB 올스타전에서 5회 터진 재런 두란(보스턴 레드삭스)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NL에 5-3으로 역전승했다.

올스타전에서 9연승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NL에 2-3으로 패해 연승이 끊겼던 AL은 최근 11차례 올스타전에서 10승 1패의 절대 강세를 이어갔다.

오랜전 애슬레틱스 강속구 투수 메이슨 밀러는 AL 5번째 투수로 등판, 1이닝 2탈삼진 무실점으로 올스타전 승리투수가 됐다.

결승 2점 홈런의 주인공 두란은 보스턴 출신 레전드의 이름을 딴 '데드 윌 리얼스 올스타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두란은 2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 1득점으로 AL에 승리를 선사했다.

보스턴 선수가 올스타전 MVP를 수상한 것은 칼 야스트렘스키(1970년), 로저 클레먼스(1986년), 페드로 마르티네스(1999년), J.D. 드루(2008년) 이후 두란이 5번째다. /연합뉴스



올스타전 MVP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재런 두란 /USA TODAY Sports-연합뉴스

우즈 "가장 뼈아픈 패배 안겨준 선수는 양용은"

우즈, 매길로이 위로하며 "나도 회복하는 데 시간 걸려"

타이거 우즈(미국)가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브리티시 오픈(이하 디오픈)을 앞두고 자신에게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선수로 양용은(한국)을 꼽았다.

A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디오픈 개막을 하루 앞둔 17일 스코틀랜드 로열 트룬 골프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US오픈 패배로 상심한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를 위로하며서 2009년 PGA 챔피언십을 회상했다.

우즈는 2009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 마지막 날 양용은에게 역전패당해 우승컵을 넘겨줬다.

우즈는 "나는 그전까지 메이저 대회에서 역전패를 당한 적이 없었다. 당시 나는 선두였다"면서 "양용은에게 패배를 당한 뒤 회복할 때까지 꽤 긴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우즈는 자신과 비슷하게 지난 6

월 US오픈에서 우승을 놓친 매길로이를 위로하기 위해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우즈는 "나도 많은 퍼팅을 놓쳤다. (은퇴한 미국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도 많은 슈트를 놓쳤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워닝샷을 쓰는 거다. 그리고 나도 여전히 마지막 퍼트를 하고 싶다"라며 매길로이를 위로했다.

매길로이는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피하려고 전 화번호를 바꿨다. 그래서 우즈가 보내 격려 메시지가 최근야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매길로이는 지난달 열린 US오픈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눈앞에 뒀으나 짧은 퍼트를 몇차례 놓치면서 브라이슨 디셈보(미국)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특히 매길로이가 18번 홀(파4)에서 12m 거리의 퍼트를 놓쳐 보기를 한 것이 결정적인 패배 요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왼쪽) /EPA-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으로 작용했다.

매길로이는 "US오픈이 끝난 뒤 이를 후에 전화번호를 바꿨다"며 "오늘 우즈가 말해주기 전까지 격려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매길로이는 "내 인생에서 우즈는 놀라운 존재다. 기쁠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좋은 메시지를 보내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연합뉴스